



2026. 6. 10 (수)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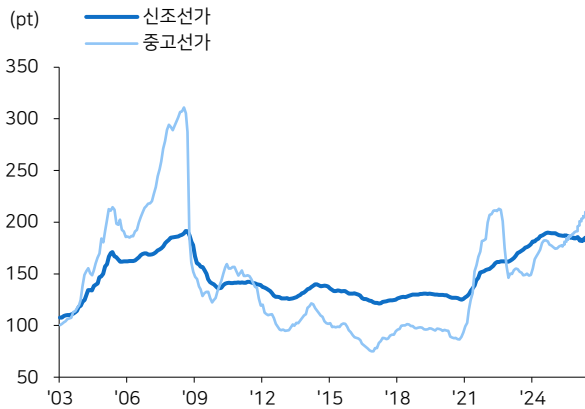
kiyeon.bae@meritz.co.kr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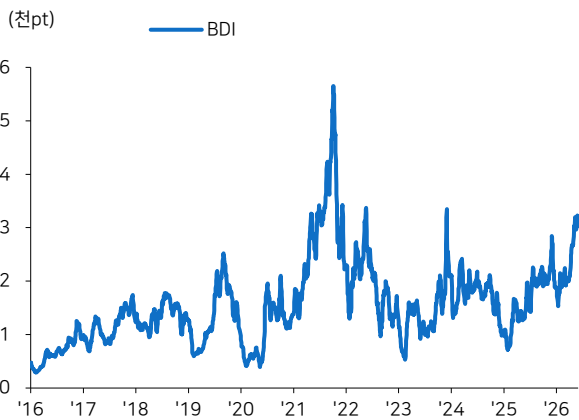
신조선가 185.0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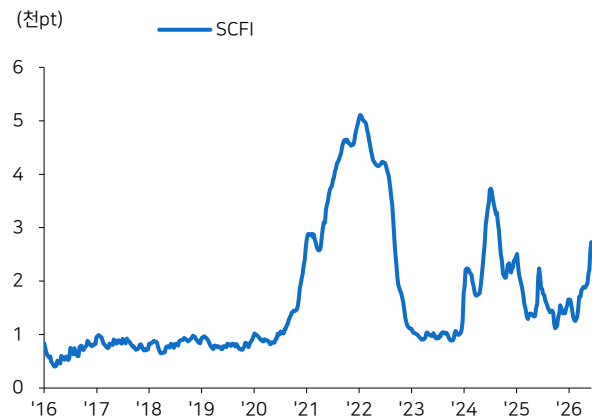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3.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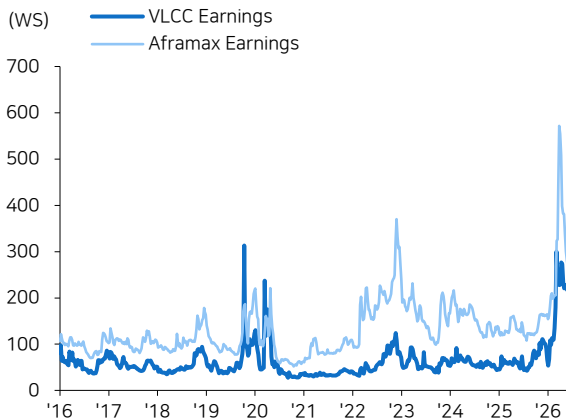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916.0p (-65.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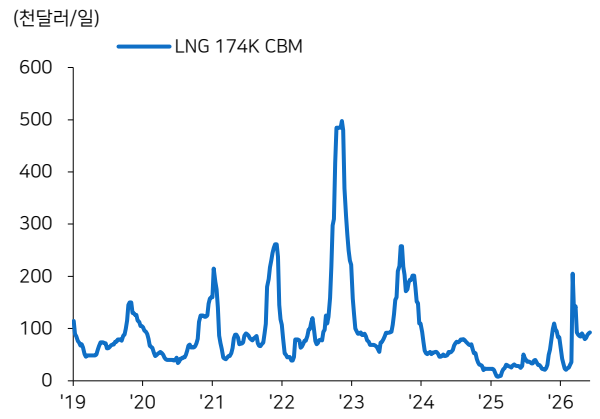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726.5(+154.8 WoW)



VLCC Spot Rate 216.2WS (-2.3p WoW)



LNG Spot 운임 92.8천달러 (+1.8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화엔진, AM 떴고 방산 불린다...그룹 사업 재편 착수 (이투데이) <https://zrr.kr/mnKe2t>

한화엔진이 선박 유지·보수(MRO) 중심의 고수익 애프터마켓(AM) 사업부를 분리하고, 군함 및 발전용 엔진 등 방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됨.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약 25%에 달하는 AM 부서의 이전을 검토하는 동시에, 한화오션의 기자재 사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일부 엔진·추진 관련 방산 기능을 한화엔진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짐. 이번 재편은 김동관 부회장 주도하에 '항정 건조-추진 기관-유지·보수'로 이어지는 그룹 차원의 해양 방산 수직계열화 및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알려짐.

울산 HD 현대중공업에 인도 타밀나두주 신임 산업부장관 방문 (연합뉴스) <https://zrr.kr/k0hqFO>

인도 타밀나두주의 키르타나 삼파트 신임 산업부 장관 일행이 취임 후 첫 해외 공식 일정으로 HD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선박 건조 현장을 둘러보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됨. 타밀나두주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해 신규 조선소 부지 조성, 인프라 구축, 세제 혜택 등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 중이라고 전해짐. HD현대는 지난해 12월 타밀나두주와 신규 조선소 건립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4월 인도 중앙정부로 협력 범위를 넓힌 바 있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조선소 건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Painful to be patient': DHT chief on newbuildings, M&A and tanker cycles (TradeWinds) <https://zrr.kr/BdwPeW>

뉴욕 증시 상장 선사인 DHT Holdings가 한화오션에 2028년 8월 인도를 목표로 하는 VLCC 1척을 추가 발주했다고 보도됨. Svein Moxnes Harfjeld CEO는 최근 중고선가 과열과 고수익 스폿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일 신조 발주를 결정했으며, 최근 1년 계약 일일 용선료가 평균 101,000달러에 달하는 등 강력한 시장 운임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다고 전해짐. 또한 장기 불황을 거치며 VLCC 선단이 노후화되어 2028년 말에는 전체 선박의 절반 가까이가 15년을 넘어설 전망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사들은 선대 교체 필요성을 인지하고 신조 발주에 나서고 있다고 알려짐.

한화, 로켓 이어 항공유 투자카드 제시...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막판 총력 (더구루) <https://zrr.kr/n7Tkb8>

한화오션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위해 캐나다 Azure Sustainable Fuels Corp와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기술 성장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협약은 경쟁사인 독일 TKMS의 우주항공 협력 제안에 대응하기 위한 파격적인 절충교역 카드로, 자사 벤처캐피털 펀드를 통해 캐나다 에너지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장을 지원하고 양국 간 산업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해짐. 이 외에도 한화오션은 캐나다 우주 스타트업 Reaction Dynamics와 협력해 발사체 분야의 투자를 추진하는 등 잠수함 건조 기술을 넘어 AI, 에너지, 우주항공 등 다각적인 현지 동맹 전선을 구축하며 수주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알려짐.

필리핀 원해경비함 또 띄운 HD 현대중공업...마르코스 "강한 해군 향한 이정표" (헤럴드경제) <https://zrr.kr/jcJTad>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필리핀 해군의 최신예 원해경비함(OPV) 2번함인 '라자 라칸둘라함'이 필리핀 해군 창설 128주년 기념식과 함께 정식 취역했다고 보도됨.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취역한 이번 함정은 길이 94m 규모의 최신예 전투 체계를 탑재한 함정으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해역의 해양 주권 수호와 장거리 감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짐. HD현대중공업은 2016년부터 필리핀 해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해 총 12척의 함정을 수주하며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고 알려짐.

Russia's Novatek moves to buy 10 ice-class LNG ships from MOL and Hanwha Ocean (TradeWinds) <https://zrr.kr/qPVYYC>

러시아 Novatek이 일본 선주 MOL 및 한국 한화오션이 관리하는 ice-class LNG 운반선 10척을 인수하기 위해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베이징에서 삼자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됨. 협상 대상에는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에 인도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6척의 Arc7급 신조 쇠빙 LNG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3척은 MOL이 Novatek의 'Arctic LNG 2' 프로젝트를 위해 발주한 선박이고 나머지 3척은 미국 제재를 받아 한화오션이 Sovcomflot와의 계약 해지 후 자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이라고 전해짐. 또한 EU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Yamal LNG 프로젝트 투입용 Arc4급 LNG 운반선 4척도 협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Novatek은 오는 2027년 1월로 예정된 EU의 러시아산 LNG 금지 조치에 앞서 아시아 등지로의 장거리 수송을 위해 추가 선단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